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3:21)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국장:이형수

다음주일설교

주의 만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23~29).



김성관 목사

소박하지만 복된 만찬

오늘 충현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의 만찬에 담겨 있는 중대한 의미를 개인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이 특별한 예배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약 2000년 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떡과 포도주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소박한 만찬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끝내고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셨으며 미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만찬에서 모든 것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목적,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괄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 한 번의 중요한 만찬에서 다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만찬은 유월절 만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큰 다락방에 모여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인 주의 만찬으로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큰 다락방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주의 만찬의 중대한 의미가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의 핵심 주제

우리는 주의 만찬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의 중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열쇠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은 순결했고 흠이 없었으며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과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묵상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도 아니요 예수님의 설교도 아니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놀라운 말씀들은 주의 만찬에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위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집중해야 할 곳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모든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상함을 입으신 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열구리는 창에 찔린 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통 당하심과 죽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고,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아름다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떡과 잔의 의미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본래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셨던 식사였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끝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날 밤 주님과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였고, 그 마지막 모임에서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것에 대한 상정으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잔을 주셨는데, 이 잔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의 피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떼어질 떡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치유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의 미래도 함께 봄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주의 다시 오심도 함께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히 비참하며 굴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과거는 끝났고, 이제는 희망찬 미래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만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겨졌고 그들은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과거는 용서되었고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복된 초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절정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만찬은 매우 거룩한 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친밀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만찬에서 우리는 하늘의 복락을 정말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에 놓으신 전구를 선행하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님은 신령하고 복되며 거룩한 이 만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초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솔한 태도로 나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물에 집중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ORD'S SUPPER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But let a man examine himself, and so let him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1 Corinthians 11:23~29).

The important meaning of the Lord's Supper needs to personally touch each person here today at Choong Hyun. This special worship time, given to us by Jesus, started about 2,000 years ago. The bread and wine were regular food back then, something the people ate all the time. Yet, through this simple meal, Jesus brought the Bible to one table. He ended the whole Old Testament sacrificial system. He started a whole New Testament way. And He made a whole wonderful prophecy for the future. All these things Jesus made known at one meal. His purpose for coming down from heaven, bringing together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as proclaimed at this one important meal. What started as the Passover meal in the big upper room ended in the Lord's Supper through a new room for God's blessing and grace. I hope that the important meaning of the first Lord's Supper is the same meaning that gives us today's Lord's Supper.

How do we take the Lord's Supper? How do we get this important meaning? Jesus told His disciple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v. 26). This is the key! It's so important for you to understand what Jesus is saying here. Whenever we take this meal, we have to proclaim the Son of God's death, not His life. Of course, Jesus' life was pure and spotless, filled with sympathy and compassion for others. However, His praying, preaching, and performed miracles on this earth are not the focal point at His Table. His stories and teachings, His ministry work, and His amazing conversations are not part of the Lord's Table. The Lord's Table centers on His death, not His life. We are under orders to proclaim only His death.

When we come to the Lord's Supper, our hearts and minds must concentrate on Jesus' death. We need to envision His broken, not glorious flesh. His blood poured out from the cross for the forgiveness of all sins. His torn body, crown of thorns stuck in His head, nails in His hands and feet, spear in His side, suffered for all. His sacrificial death was God's grace to you.

His humiliation, torture, and ultimate death provided the way of salvation, so that you could be reconciled to God eternally. Jesus died so that you could live. His ugly death gives you the opportunity for a beautiful life.

Jesus made the Lord's Supper. It was His last meal before walking to Calvary. He concluded all His work at this one meal. The Lord and His disciples came together that night, in one last meeting, and Jesus broke the bread as a symbol of how His flesh would very soon be broken. He poured the wine cups that night as a symbol of how His blood would also very soon flow out. The cup represents His blood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 and the broken bread represents the cure for our sinful nature.

The amazing thing about proclaiming the Lord's death is that when we do so, we also at the same time proclaim His second coming. The cross of Christ is totally a humble and humiliating place, but it shows the glorious kingdom of God. The past is finished, and the future is open to life with God. The sins of believers are washed clean, and eternal hope is present. The past is forgiven, and the seal of the future is marked.

Let's examine our hearts and confess our sins before the Lord now. In this church, the most important time for our worship is going to begin. Jesus made this meal for us. It is a most holy meal. It is God's doing, His closest act of love toward us. Right now, in one of the most intimate ways, we can experience heavenly blessing. Let's all proclaim Jesus' death. In front of the slain Lamb, we worship the Lord or Lords. We open our eyes and look to heaven to the place He has prepared for us. Let us remember that the Lord invites us to come. He call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Jesus is calling you now to this spiritual, blessed, and holy table. Come with authority and a humble heart. Come with a serious attitude toward proclaiming Jesus' death. Come with thankfulness. Never ignore this invitation. Never come for amusement. With your body, heart, and mind all centered on Jesus' death and second coming, join this Lord's Table. 

2003년도 하반기 교육훈련연구원 개강

2003년 9월 14일(주일) ~ 11월 30일(주일)

9월 14일부터 교육훈련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훈련 과정들이 시작된다. 특별히, 이번 하반기부터 중간성경공부와 교양양성부가 크게 개편되었다. 먼저 중간성경공부는 교리반, 성경역사반, 사역반, 성장반 등 4단계로 교과 과정을 재구성하고, 각 강좌에 고정 강사를 배치하였으며, 정식 교재를 편찬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 강좌의 수료 여부를 교무부에 통제하여 각종 입학지 선정시 참고하기로 하였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임금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한 배움과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양양성부도 새로운 과목과 편제로 이전보다 더욱더 실제적인 교사 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교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도록 하였으며, 분반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배가시켜 주도록 했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크게 함양할 수 있도록 각 강좌를 개설하였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거룩한 교회의 신실하고 능력있는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는 모든 훈련과정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큰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꾼들이 잘 양성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 주간성경공부 2003년 하반기 개설과목

일 시	화요일	수요일
오전 10:30~12:00	느헤미야(이태복 목사)	
오후 2:00~ 3:30		요한복음(김응덕 목사) 이브리서(김장수 목사) 마태복음(안창희 목사) 빌립보서(서광진 목사)
저녁 7:30~ 9:00	에베소서(방준영 목사)	

☞ 에베소서

방준영 목사(화요일, 저녁 7:30~9:00)

당신의 신앙과 삶은 건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는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를 향해 도전을 주며, 오늘 나의 위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영적 지표들을 제공해 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두런노서에서 2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과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건 강한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의 면면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향해 영적 삶을 향한 격려와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된 새 사람과 새로운 공동체, 부름에 합당한 삶, 성령충만한 가정과 직장생활, 영적무장을 통하여 낙담하게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진단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움을 입기 원합니다.

☞ 빌립보서

서광진 목사(수요일, 오후 2:00~3:30)

우리는 지금 기쁨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락한 보급사회에서도 단점을 지니지 못하고,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걱정 근심에 방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안락함으로 어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책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을 부추겨 쾌락적 삶을 부추기고 있고, 탐욕을 따라 방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한 사람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자 빌바돈지는 것들을 오히려 버리고 감옥에서 시한성고를 기다리면서도 남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의 몸이면서도 참 자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기쁨과 자유가 나왔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반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이 깨달음의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바울의 권면을 공부해 기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요한복음

김응덕 목사(수요일, 오후 2:00~3:30)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온

총이 얼마나 크셨으면 하늘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빛으로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죄에 휩쓸려 가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 마태복음

안창희 목사(수요일, 오후 2:00~3:30)

"마태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성경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는 놀랍고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대담을 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마치 선물을 주시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듯 주님의 왕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래 전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기다리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성경을 더 많이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 주님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던 바로 그 분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주도심과 내 삶의 주인되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내 삶이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 히브리서

김장수 목사(수요일, 오후 2:00~3:30)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신성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찾아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게 자가 되었도다. 대저 첫을 먹는 자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한자요"(히 5:12~13).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자를 몰고 있는 어린 아이처럼 계속해서 말씀의 초보만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린아이의 믿음들을 성령의 소욕을 좇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좇는 믿음이라고 말한바(고전 3:1~3), 히브리서

이러한 어린 아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히브리서에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에 정당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세 가지 온전케 됨과 온전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도에 대해서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도에 관한 여러 예표들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온전케 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도에 대한 소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식하는 믿음이 되고, 창성한 자가 되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도의 온전케 됨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합니다. 심지어 창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한 강력하고 두려운 경고까지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케 된 성도들을 통해 하늘의 예루살렘 곧 교회의 온전케 됨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처럼 성도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공부함으로써, 성도도 하여금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회에 이루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 느헤미야

이태복 목사(화요일, 오전 10:30~12:00)

느헤미야는 기독교적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시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탁월한 모범이 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지도자 리더십의 관점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분석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위한 느헤미야의 헌신적 삶을 통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위하여 어떤 심정, 어떤 태도로 헌신해야 할 것인지를 대한 원리와 방법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공부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대에 무너져 있었던 저 에루살렘 성벽처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영적으로 쇠퇴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는 백성들이 교회의 영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원수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적막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참하게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에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자신의 출세와 영광을 버리고 광야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전심으로 헌신한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느헤미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금 거다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매진하도록 합니다.

제 57기 교사양성부

2003년 9월 14일(주일) ~ 11월 30일(주일), 12주간

매 주일 오후 3:00~4:30, 베다니홀

제 28기 찬양대원 양성부

2003년 9월 14일(주일) ~ 11월 30일(주일), 12주간

매 주일 오후 3:00~4:30, 찬양위원회의실

구역장 양성훈련

여성구역장

기간: 매주 수요일 예배 후

장소: 각교구별 지정된 장소

장사: 각교구교역자

교재: **월간(종전의 만나) 중 구역예배공과**

남성구역장

기간: 매월 1회 수요일 2부 예배 후

(교구별로 주2회(2명))

장소: 각교구별로 지정된 장소

장사: 각교구교역자

교재: **월간(종전의 만나) 중 구역예배공과**

CMTC 집중훈련 안내

◆ 현재 지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26일(화)~9월 5일(금)	카자흐스탄	9교구 8지역	조중광
8월 26일(화)~9월 5일(금)	카자흐스탄	17교구 9지역	진학래

1. 일 시 : 2003년 9월 6일(토) 9:00~18:00
2. 장 소 : 나사렛홀
3. 대 상 : 9~12월 중 단기선교 참여 희망자 중 미수료자
4. 회 비 : 학생 5,000원 / 일반 10,000원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9월 5일(금)~9월 13일(토)	스리랑카	5교구 1지역	이지은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8월 19일(화)~8월 27일(수)	불가리아	13교구 1지역	임연수
8월 19일(화)~8월 29일(금)	우크라이나	4교구 5지역	박우현
8월 19일(화)~8월 29일(금)	우크라이나	8교구 2지역	박승길

강의 시간	교육 과목	강 사
1강 (09:00~09:50)	영성 훈련(1)	정현민 목사
2강 (10:00~10:50)	교회 선교 정책	이종철 목사
3강 (11:00~11:50)	선교 역사(1)	고광환 목사
4강 (12:00~12:50)	선교 역사(II)	안창덕 목사
	점심시간	
5강 (14:00~14:50)	전도 실제	여국근 목사
6강 (15:00~15:50)	팀훈련의 실제 준비 및 사역	방준영 목사
7강 (16:00~16:50)	단기 선교 이론과 실제(나라별)	여성기 목사
8강 (17:00~17:50)	영성 훈련(II)	이종대 목사

* 전반기 CMTC훈련 수강자 중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으로 인해 수료하지 못한 성도는 금번 집중 훈련에 이수하지 못했던 과목을 수강하여 CMTC를 수료할 수 있음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단기 선교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박 전 아 (림사, 7교구 1지역)

물품, 신유교연방, 물도바, 네팔, 넵 달 동안 사역지가 계속해서 바뀌어서 머릿속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뒤엉키는 중 번비도 부실한 채 네팔로 떠났습니다. 처음에 준비하던 나라가 아니어서 실망도 했고, 정보가 별로 없어서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감히 말해 봅니다.

우리가 간 곳은 네팔의 남쪽으로 인도와 접해 있는 국경지역 인근의 마을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착하고 순박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간다면, 알고서도 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팔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암택칸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의 도움으로 운동장에서 전교생 이백여 명에게 준비했던 성경이야기 세 편과 사영리를 전하고 결산의 시간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라토마트'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우리는 전교생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빌칸지'의 열악한 병원 두 곳을 찾아갔을 때도 그들은 흔쾌히 우리에게 전도를 허락했습니다.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숨쉬기 힘들 정도로 덥고, 탁한 공기가 감도는 그곳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손을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당신은 왜 예수를 전하러 여기까지 왔는가?'를 물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하든, 예수는 자신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지를 물었습니다. 어쨌든 언어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아둔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턱대고 찾아간 네팔에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정된 여건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몸이 연약한 팀원들이 있었고, 저도 건강을 걱정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한 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피로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불같은 신앙의 제련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팔에 가면서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까지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서 못 견딜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계신가를 똑똑히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완벽한 계획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 없이도 당신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길 기뻐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온 지 20여 일이 지난 지금도 팀원들은 그 때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공감하곤 합니다. 그 옛날 복음 하나만을 들고 미지의 땅인 조선에 발을 디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게 된 것처럼, 머지 않은 미래에 네팔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져 네팔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9).

인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강 희 창 (한수림사, 9교구 2지역)

인도 마하라스트라 주에 있는 푸네지역으로 단기선교를 가기 위하여 2월 23일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푸네 대학생과 메일을 통해 준비하던 일들이 그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때 저는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도 근심하지 말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푸네 지역에서 몸바이지역으로 사역지를 바꾸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7월 28일 인천 공항에서 전도하다가 인도인 '베드로'라는 분을 만나 인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희 팀은 사역기간 동안 매일 오전과 오후에 두 곳의 사역지를 정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더운 시간에는 쿨룸으로 햇볕을 가리고, 휴식시간에는 소나기로 뜨거운 열기를 식혀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의 폭행 및 폭질 등의 테러행위나 경찰의 전도 방해를 예상했으나 아무일 없이 사역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지를 이동할 때 팀원들은 발이 부르터서 걷기도 힘들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곳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고 전도지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그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결산자 카드에 등록한 자만 2,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도는 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나 어부가 없어서 고기를 낚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충현의 어부들이여! 꼭 단기선교에 지원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신의 감동을 드러마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손석진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당신의 남은 성경

당신의 생애처럼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너무 남은 성경책을 바라보며

함박꽃을 맞으신 양 눈이 부신

어머님의 검게 빛나던 머리결처럼

차마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당신

사랑과 기쁨을 가르쳐 주신 당신

나는 오늘도 두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손석진 성도는 충청교회 병원전도대로부터 복음을 접한 성도입니다.

폐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병이 다 나은 후에도 복음을 위해 전진하도록,
현재 집안 일원 병원에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앙오실

11교구 평창구역 심신회 성도

뇌출혈로 강남병원 403호에 입원 중입니다. 군부대에서 전도하는 데 생을 보내, 지금은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빠른 폐유와 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은 아들 한 명이 전부입니다. 아들이 주님을 알고는 있으나 뚜렷하게 출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17교구 수내구역 김영성 성도

간에 염증과 담석이 있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1111호에 입원 중입니다. 아픈 중에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폐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9월 7일) 2003년도 제 5차 성찬식 및 전(全)교인 가족연합예배

다음 주일에는 2003년도 제 5차 성찬식이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에 걸쳐 시행된다. 총헌의 모든 성도들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행되는 이번 성찬식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리고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건강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전 11:28). 특별히 다음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는 전교인 가족연합예배로 드린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참 기쁨을 함께 맛보고, 성찬식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새 · 가 · 족 · 을 · 형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92	윤광성	1 청년2부		1099	한선아	17 청년2부 지순애(17)		1106	박규태	19 대학부 우병강(8)	
1093	김도연	1 청년2부		1100	이현수	17 청년2부 정태웅(5)		1107	최성은	19 대학부 이세진(19)	
1094	김은희	7 청년2부		1101	허주현	17 청년2부 조영희(5)		1108	이혜라	19 대학부 최두우(15)	
1095	정영희	11 청년2부		1102	노연옥	19 청년2부 김관근(11)		1109	박지훈	19 대학부 최두우(15)	
1096	김성순	12 소망부 김경진(2)		1103	문재미	19 고등부 노장희(1)		1110	최효영	19 청년2부 손은희(2)	
1097	김경자	12 소망부 김경진(2)		1104	조은혜	19 대학부 이하나(16)		1111	김경은	19 청년2부 한현숙(14)	
1098	노인기	13 청년1부		1105	김슬연	19 대학부 김진경(5)					

★ 충청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장년 2부 수련회 후기

진 학 례 (안수집사, 장년2부)

어언 교회학교 수련회가 25회를 맞았다. 금년 수련회에서는 특별히 개인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주제로 무사히 마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억만 죄악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과 그 보배로운 피 값으로 속죄할 발아 믿음으로 구원해 이르기 끝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죄인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다. 인간적으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육체적 삶은 고통과 죽음 뿐이요 영생을 누릴 수 없다.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었든, 모태신앙이든, 교회의 직분을 맡았던 간에 사람은 회개할 일이 많다. 세상에서 들은 지식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려 한다. 고령관념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과거는 이러하였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얼마나 원망하고 시기하며 질투를 하였던가.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멀리하지는 않았던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으며 우리는 그로 인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원자,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죄와 허물 뿐이다. 어제의 신앙생활로는 현재를 보충지 못하므로 과거를 버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첫 사랑을 회복하는 일인 것이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결심과 각오와 감사가 지금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대의 마음껏 않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으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하셨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진정한 성전은 우리의 소고나 봉사가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에 흘러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성전, 영원한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주의 보혈이 우리 맘에 흐르니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을 부어 주소서. 또한, 선교와 전도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몸 주님 만났 그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큰 은혜로 오래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찬송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비오니”

호레이시어스 보나르 박사가 쓴 성찬찬 송이다. 원문은 7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2,5,6절을 택했다. 작시자는 1년에 한 번씩 스코틀랜드의 성 안드류 자유교회에서 시무하는 형인 존 보나르 박사를 찾아가 성찬예식을 도와 주었다. 그러다가 1855년 10월 첫째 주일, 주님의 사랑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 같은 영적 체험을 하였다. 그는 성찬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과 마음 속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쁨을 얻는 것을 깨달아 그 감격과 성찬의 진정한 감사를 이 찬송시에 담았다.

- 1절 오 나의 주님 친히 비오니 영원한 세계 버려 떠나니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려 맡기리
- 2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 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 3절 주 예수 밖에 도를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 4절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친히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게 주리니 아멘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찬양위원회)

To: 사랑하는 중등3부 친구들에게

아침에 내린 여름비에 더욱 푸르러진 자연을 바라보니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새로 시작하는 2학기라 혹시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범 덕분에 공부(?)라는 것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에 속하든지, 오늘 이라는 하루에 충실하며 정직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매우 만나면서도 친밀한 한 마디의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너희들을 만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과 고민(?) 속에 무척 빠르게 지나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나는 강의실에서 창 밖을 보고 있단다. 그리고 바쁜 한 주간을 지내고 있단다. 이번 주는 개강 수련회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새로운 각으로 새 악기를 맞이하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사랑, 기쁨, 감사, 답답함, 가능성, 하나님 사랑? 어느 것이든 좋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큰 가능성을 보게 되단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 열정, 믿음을 볼 때 커다란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야. 비록 지금은 미약한 면도 있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너희들을 볼 때 거기에 큰 가능성을 보게 되단다. 언제나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아주는 너희들이 매우 대견하단다. 너희를 처음 만난 1월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영적으로나 신적적으로나 무척이나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목을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너희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길까 생각하게 되단다.

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앞으로 남은 4개월도 지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말씀 중아서 너희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한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야. 한번 들어봐.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7).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보자. 할 수 있겠지? 그럼 너희를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며 너희를 위해 매일 기도할게. 안녕.

From: 너희를 사랑하는 우리가

(강인철 전도사·중등3부 부지도)

감사의 마음으로

최영실 (중등1부, 교사)

중등부 교사를 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과 만난 것이 벌써 한 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많이 의외하고 반듯해진 것 같아 정말 기뻐요. 글을 부탁 받고 무엇을 써야 할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중등부였을 때를 생각해 보았지요. 그때는 꿈도 크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중학생이던 때도 생각해 보았는데 세 명의 아이들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학교에서 잘 자랐음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있을 때에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해야 할까 생각하곤 했었는데 나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받았던 사랑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이제 겨우 용기를 얻어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제 어른이 되려고 시작한 여러분이 어설픔고 어린 티를 못 벗어 안타깝게 느낄 때도 가끔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 모두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줄 믿어요. 그 때를 더욱 기다립니다. 그 때를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중등 1부 교사로 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글을 마칩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산헤림의 침략(대하 32장)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마친 후 앗수르 왕 산헤림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왕하 18:13-16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 왕 산헤림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많은 뇌물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가를 하는 측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헤림이 유다를 침입하자 전쟁준비를 합니다. “...되락한 성을 중수하고 담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5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왜 이같은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뚫박하면 이루어주시는 요술방망이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앗수르의 침입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히스기야는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늘 하시는 말씀이지요. 유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앗수르 왕 산헤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시지요. 당연한 것 같지만 실상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자취를 감추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강하신대 말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8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안심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능히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창 4:13).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나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신단다.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히 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힘들지만,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가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20절). 그 결과 수많은 적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한 분으로 멸망합니다(21절).

(권한철 기자)

예수 안에서 산 자의 삶

이희석 (목사, 중등2부 지도)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인간을 처음 부르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에는 주께로 오라는 부르심이 1,8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사 55:3a). 죄인들이 진노를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는 죽음의 저주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하시며 진노 중에도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어 아담은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이신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와에게 ‘산 자’ 즉, 생명이 있는 자(20절)가 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족뫼를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족뫼는 장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고난을 받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어린양으로서 회생당할 자들을 보여주는 옷입니다. ‘속죄’라는 히브리어처럼 이 가족뫼는 ‘가련단’, ‘덜는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족뫼를 입혀 죄를 덮어 주셨던 것처럼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족뫼를 지어 입히신 후 급히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추방 하심으로써 더 이상 인간이 에덴동산에 대한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동산의 문은 굳게 닫은 반면 천국의 문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족뫼를 입히시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취원의 옷을 입히시고 세상을 향해 추방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추방된 그리스도인들은 땅 끝까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린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산 자의 삶입니다.

